

한국에 유상(儒商)사상 표현 논하여

왕진(천진사범대학역사학원, 중국)

王臻(中國 天津師範大學校 歷史文化學院 教授)

중국의 전통 문화인 유교 사상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중추적인 사상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전근대 시기의 경제 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유상” 사상은 유교 사상이 당대의 사회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던 실례라는 점에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생한 유상 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전개된 양상, 특히 20 세기 후반 한국의 현대화에 이바지한 특징 및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 현대화에 던진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유상 및유상사상의 개념

유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중국 北京大學 儒商文化研究中心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학계에는 12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¹. 그 가운데 國際儒商學會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의 개념은 “유교 학설의 영향을 받아 道義와 利益을 함께 중시하며, 신용을 지키고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고 정의되고 있다². 이같은 설명은 그 의미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유상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의미를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유상의 오랜 형성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부여된 역사적 함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상 및 유상 사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면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유상 또한 중국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의 산물이므로, 중국의 사회 사상적 배경 아래 그 의미와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 천 년의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법가 사상을 내세웠던 秦代 및 黃老思想의 “無爲而治”가 사회 주요사상을 차지하였던 漢代 초기를 제외하고는, 늘 유교 사상이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교 사상은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에

¹ 北京大學儒商文化研究中心, <http://www.pku-rswh.com/theoryNH1.asp>.

² 國際儒商學會, <http://www.gjrsxh.com/gjrs/wdisp.asp?id=64>.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의 세계관, 도덕관, 종교 신앙 등의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상은 유교 사상에 기반하여 경제 행위를 주도하고 경제 행위 가운데 유교 사상이 제창하고 중시하는 仁.義.禮.智.信 五常의 기본 덕목을 실천하는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유상은 중국의 전통 상인이 유학이라는 중국적 사상 조건 하에서 성장하며 형성되었던 특수한 집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유교적 윤리와 상업적 재능을 겸비한 인재야말로 “儒”와 “商”의 완벽한 결합으로 간주되었는데, 형식 내지 운반체의 측면으로서 상업 활동과 핵심 내용의 측면에서 五常으로 상징되는 유교 사상을 겸비하여야만 유상으로 칭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상은 경제 활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일반 상인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자산을 확충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며 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생각한다. 유상사상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덕으로써 입신의 근본을 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익과 의리의 통일적 가치관을 견지하며, 인의 덕목을 근본으로 삼는 관리 방식 아래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진취적 의식과 능력을 구비하였다.

이처럼 유교 사상의 핵심 이념이 경제 사상과 결합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유상 사상을 수립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경제 활동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유상연합회 湯恩佳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孔子的 유가사상은 유상 정신의 핵심이다.” 유상사상은 오랜 기간 중국의 전통적 경제활동에서 심원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측면의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사상은 “禮의 실천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禮之用, 和爲貴)”라는 점을 강조하며³,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를 강구하도록 주장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조화로움을 추구하였다. 유상사상은 상업 활동 가운데 “조화로움 기운이 재물을 생겨나게 한다(和氣生財)”는 말을 주장하며 약탈적 경영방식에 반대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사회현실의 조화를 강조하며 평화로운 매매 과정을

³ 《論語·學而》。

통해 쌍방의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에 도달한다.

둘째, 유가사상은 성실과 신의를 사람의 근본으로 간주하여 “신의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無信不立)”는 정신을 강조하며, 일처리에 신용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유상사상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한다. 아울러 공평성과 합리성을 이루고자하여 “어린애와 노인이라도 속이지 않으며(童叟無欺)”, 절대로 사기와 간계를 부리지 않음으로써 상업 도덕 및 사회적 신뢰를 추구한다.

셋째 유가사상은 “의리와 사리의 분별(義利之辨)”을 강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가운데에서도 ‘義’를 겸비할 것을 요구하니, 義와 利 모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유상사상의 핵심은 상인을 유학사상의 계승자로 간주하며, 일신의 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소비자) 및 국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재부는 ‘불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유가사상에서 제기한 “좋은 장사꾼은 사람과 가격을 다투지 않는다”는⁴ 상업 도덕을 관철하려 하며, 이같은 신조를 위반한 상업 행위를 정통 유가사상에서 어긋난 “小人”의 도라고 여긴다.

2. 한국의 유상사상의 특징

중국의 학자 季羨林은 《東方文化集成》의 머리말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문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가 일단 탄생하면 바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문화 교류이다.”⁵ 유교 사상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유교는 중국 내부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 영향은 더욱 심원하였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리적 관계에서 보면, 한반도 북단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남부는 중국의 산둥반도 및 요동반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실로“脣齒相依”라는 말로 표현할 만하다. 이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상에서 여러모로

⁴ 《戰國策·趙策》。

⁵ 季羨林: 《東方文化集成·總序》, 昆侖出版社, 2004.

깊은 교류를 맺을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사상 중 오랜 기간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유가사상은 고전 유학으로부터 근대 실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기에, 사상의 발전 흐름이나 사상 체계의 변화 과정이 중국의 그것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며,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을 구성하였다. 물론 문화의 전파 과정은 또한 문화가 현지의 고유한 문화와 결합되는 합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교 사상은 한국으로 유입된 후 중국에서 발생한 그대로의 상태로 정체되어 온 것은 아니라 현지의 문화로 새롭게 구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한국의 유교 사상이 중국의 유교 사상을 기계적으로 베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유교 사상은 독자적인 선택성과 목적성 아래 수용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중국의 유교 사상을 충실히 소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본국의 사정과 문화 전통에 기반하여 현지화에 성공함으로써 독자적인 특색을 형성시켰다.

유교 사상은 한국 사회에 실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듯이, “유교문화는 민족과 지역의 경계선을 뛰어 넘어 일본과 조선 등 이웃 국가에 전파되었다. 특히 주자학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결코 중국 본토에 대한 영향에 못지 않았다.”⁶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유교문화는 수용과 발전의 과정에서 선택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고유의 민족적 특징에 근거하여 풍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환언하자면, 유가문화는 한국에 도입된 뒤 고유의 문화 습속과 결합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며 발전해 왔다. 그렇기에 유교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유상사상 역시 한국에 도입된 이후 전통적 유상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개조, 변화시킨 가운데 한국식으로 융화되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한국 유상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禮”의 중요성에 대한 중시로, 경영 과정에서 “예”로써 남을 감복시킴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세심하게 이해하며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의 고객지상주의로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한층 더 “尊卑有序”의 상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⁶ 《東亞三國의近現代史》，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5年。

둘째, “誠信”을 기업 생존의 근본으로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유가사상의 “성실함이 아니면 장사꾼은 장사로 먹고살지 못한다”⁷는 관념으로, 상업 활동에서 스스로 좋지 못한 경영방식을 통제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 형상과 좋은 기업 평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천하의 흥망은 匹夫의 책임이다”라는 고도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여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 공공성 건설에 기업의 적극적 투신을 격려하며 사회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의 명운을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민족, 사회,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작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3. 유상사상이 한국 현대화에 미친 영향

한국은 중국의 유상사상을 수용한 뒤, 경제발전 및 현대적 기업관리 방면에서 유상사상의 영향을 구현함으로써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였다.

(1) 유상사상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작용

한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 현대화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유상사상을 떠나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오랜 기간 유상사상을 신봉하고 실천한 데에 그 근원이 있다. 한국은 전통적인 유상사상의 찌꺼기를 버리고 시대적 발전에 합당한 핵심을 채택하여 이로써 경제 건설의 지침으로 삼았다. 한국은 유상사상 가운데 의리를 앞세우고 사익을 뒤로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사상을 이어받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집단주의, 민족주의, 엘리트주의 등의 요인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하였다⁸.

유상사상이 中庸과 조화의 사상을 흡수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유가의 大同思想을 발전시킨 기초 위에 동서양의 선진적 경영이론과 경제관리 제도, 과학기술 문화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강자립의 “圓融思想”⁹을 창도함으로써, 공업기술, 전자과학 등의 방면에서 특출난 성과를 거두고 현대화의 발걸음을 진척시켜 나갔다.

⁷ 《管子·乘馬》。

⁸ 杜冰:《试析儒家文化对韩国经济增长的影响》,《沈阳建筑大学学报》2007年4期。

⁹ 金柄珉:《东北亚文化与东北亚经济》,《东疆学刊》2006年2期。

요컨대,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 가운데 유상사상을 중요한 지도 이념으로 삼고 한국의 실정과 결합 실천하여 국가 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본래의 낙후된 약소국으로부터 일약 세계적인 공업 강국으로 발전하여,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국가가 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2) 유상사상이 한국의 현대적 기업관리 방식에 미친 영향

첫째, 한국의 유상사상은 사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대단히 존중한다. 유학의 핵심 사상인 “仁者愛人”¹⁰ 관념의 영향 아래, 사원들이 충신토록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한다는 의식을 수립시키기 위하여, 한국 기업들은 사원들이 회사를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원들의 의식주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울러 사원들의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 혜택을 증진하는데 막대한 재력과 물력을 투여함으로써 인재들이 기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후에야 사원들은 뒤를 돌아보는 걱정없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바치게 되니, 이는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강대한 내적 구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한국의 유상사상은 기업 전체의 조화로움을 강조한다. 유상사상은 강렬한 집단주의 정신 및 고효율의 팀워크를 건설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기업은 모든 개인들에게 적극성과 창조성을 고취하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하며, 더 나아가 집단 속에서 개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요구한다. 즉 집단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헌신해야 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학의 “禮之用，和爲貴”¹¹라는 관념의 영향 아래, 한국 기업은 기업 안팎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대단히 중시한다. 기업 내에서는 상하 간의 조화로움을 내세우며, 사원들 간에는 인격적 평등과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맺음으로써 집단주의적 협력정신과 단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기업은 스스로의 발전 및 내부의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원 대회 등의 형식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의 건의와 의견을 청취할 뿐 아니라, 사원들이 존중감을 받고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기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¹⁰ 《论语·学而》。

¹¹ 《论语·学而》。

셋째, 한국의유상사상은 기업 운영계층의 말과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를 중시하며, 지도층이 “修己安人”¹²하는 모델을 숭선수범하기를 강조한다. 관리자는 자신의 도덕적 수양과 인격적 완성을 대단히 중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모범이 되어야만 권위를 세우고 아랫 사람들이 본받게 할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 내부 각 단계의 위계질서를 세움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유상사상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강조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출세하면 천하를 구제한다(達則兼濟天下)”¹³는 경영이론을 신봉한다. 그들은 사회가 기업 생존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사회의 공평성을 전제로 삼는다. 사회 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떠안으며 사회의 공공사업 건설에 참여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기업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¹⁴를 가지고, 기업들은 공익사업에 열정을 기울이며 사회적 공헌을 중시한다.

4. 한국의유상사상이 중국 현대화에 주는 시사

독립적인 문화형식으로서의 유교문화는 중국을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현대화 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저애작용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사회의 정치와 문화발전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힘이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문화요소는 변화 가능한 요소여서 어떤 가치관을 제공하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일으키고, 그 사회적인 기능은 주로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을 위하여 일종의 행위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역사 연구의 근본 목적이 동서고금의 변화를 통찰하여 현재의 거울로 삼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유상 사상은 근대화 발전 과정 중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드러냈다. 유상 사상은 서양의 현대적 과학기술과 관리사상 면에서 서로 결합되어 한국의 실정에 알맞는 특색 있는 경제사상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제사상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정신적 동력으로 되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촉진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¹² 《论语·宪问》。

¹³ 《孟子·尽心》。

¹⁴ 林智鑫：《试论韩国企业文化的儒学情结》，《黔东南民族师专学报》2001年4期。

작용을 일으켰다. 국정이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근대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유상 사상의 적극적인 작용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유상사상과 민족주의가 상호 결부되어 강대한 정신동력을 응집시켜 불과 수십 년에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되게 하였다. 유상 사상중의 가족 관념과 자강불식의 진취적인 정신은 한국에서 유달리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개혁개방 이후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거울로 삼을 만한 발전의 모델을 외국에서 찾아왔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시선을 서양의 선진 국가로 돌리고 주변 세계 및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중국 자신이 후발국가이기에 발전 단계에서 서양 이외의 대부분 후발 주자들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런 국가들의 현대 경력은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교훈이든 중국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더욱 크다. 더욱이 중한 양국은 모두 동아시아에 위치하여 문화연원이 동일하고 인종이 비슷하며 발전단계가 유사하기에 한국의 현대화 경험이 중국의 발전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은 각별히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다. 경제 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중국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탐구 건설에서 문화 근원이 같은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경험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 한국이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경제발전과의 균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성화한 유상 사상은 중국에 대해 더욱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참고 의의가 있다.

한국의 유상사상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그것이 중국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개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작용, 집단의 작용을 중시하고 인재 배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습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뛰어난 개인이야말로 창조력을 지닐 뿐 아니라 집단주의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핵심적 경제력을 지닌 사회주의 경제 건설단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 본래의 낙후된 조방형 경제를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집약형 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관건이다. 한국의 유상사상 가운데 인재를 중시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인재를 배양하며 집단 건설을 최우선에 놓은 것 등 여러 방식은 모두 중국이 배울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전통적 유상사상의 정수를 발전시켜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여타 나라들의 현대적 경제 사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양자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시켜야 한다. 중국의 전통적 유상사상은 그 장점이 많기는 하나 현대적인 국제 경제의 시스템 속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허다한 병폐 또한 가지고 있다. 만약 유상사상을 현대적인 국제 경쟁에 적용하려 한다면, 한국의 유상사상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 유상사상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서방을 비롯한 현대적 경제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한국의 사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운영 방식을 만들어 내었다. 그렇다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려는 중국 역시 전통 문화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국제 경쟁력의 가운데에서 완전한 결합점을 찾아내야 한다. 동서양을 함께 고려하고 원융과 조화를 이룬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중국의 참고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셋째, “以和爲貴”의 전통적 유상사상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서열적 경쟁을 인도하는데 주의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급속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유상사상은 “和氣生財”의 정신을 대단히 중시하지만, 현대적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경제 주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관해서는 한국의 유상사상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조화를 숭상하는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기업 내 관리자와 사원이 상하 일심이 되도록 하였고, 평등한 교류와 화목한 관계로써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동시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집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류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일류 기업들을 세울 수 있었다. 한국이 그러한 모순에 대처한 솜씨 좋은 방법은, 조화롭고 질서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경쟁력을 증강하며 시장경제의 질서있는 경쟁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빠르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려는 중국에 대단히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덕으로써 정치를 한다(爲政以德)”¹⁵는 관리사상을 내세우며,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스스로의 소질을 제고할 것과 시장경제 주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¹⁵ 《论语·为政》。

중시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 가운데, 기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배양은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방식을 학습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지도 계층의 모범을 중시하며 지도 계층에게 몸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기업을 관리하는 가운데 관리자의 술선수범과 인격 수양을 대단히 중시한다. 기업 관리자의 시장을 조정하는 능력과 경제 동태를 통찰하는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도덕적 수양을 중시함으로써 기업 관리자로 하여금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게 한다. 그밖에도 한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産業報國”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상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주도하는 인재들을 배양하는데 거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세계는 경제적 방면에서 전지구화의 추세가 날로 분명해지는 한편, 지역경제의 일체화 경향 역시 부단히 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가는 이미 시간이 촉박한 과제이다. 유상사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부합한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유사한 문화적 연원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화 과정 중에서 유상사상은 이미 두 나라가 함께 향유할 만한 이성적 광채를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유상사상의 발전은 양국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일체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